



editage

피어리뷰어 실전 가이드

분야, 저널, 경력 단계를 가리지 않고 바로 참고 가능한
리뷰어 실전 체크리스트



초청 수락하기 전

- **이해충돌**

최근 3-5년 내에 공저자, 지도교수/지도학생, 가까운 공동연구자, 직접적 경쟁자, 혹은 같은 기관에 소속되는 등의 관계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에디터에게 알립니다)

- **전문성 부합도**

주제 영역뿐 아니라 핵심 방법론이나 주장까지 평가할 수 있는가?

- **여력**

기한 내에 현실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가? (어렵다면 에디터에게 알립니다)

- **사전 접촉 여부**

다른 저널 등에서 이 원고를 이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에디터에게 알립니다)



‘CLAIMS’ 접근법으로 논문을 검토해 보세요

간단한 프레임워크 하나면 리뷰를 한결 수월하게 구조화 할 수 있습니다.

주장	근거가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주장이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는가?
선행연구	문헌 검토가 균형 잡혀 있는가, 아니면 논문의 주장에 유리한 연구만 선별적으로 인용했는가?
접근법	방법론이 연구 질문에 맞는가? 다른 연구자가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한가?
해석	결론이 데이터에서 도출되는가, 아니면 데이터를 벗어난 주장까지 포함하는가?
자료	데이터, 코드, 자료가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가?
의의	이 연구가 누구에게 의미 있으며, 논문이 그 점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가?



권장하는 시간 배분

소요 시간은 원고의 길이, 복잡성,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익숙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칙이 아니라 대략적인 기준으로만 참고하세요.

단계	대략적인 소요 시간
1차 통독	60-90분. 정밀하게 읽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
정밀 독해	약 3-5시간. 'CLAIMS' 프레임워크에 따라 섹션별로 검토
리뷰 작성	약 2-4시간. 에디터와 저자를 위한 건설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 작성



그림과 표 검토 시 확인할 사항

간단한 프레임워크만 활용해도 리뷰를 쉽고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축, 단위, 그림, 표에 명확한 레이블이 붙어 있는가? 불확실성(오차 막대/신뢰구간, 표준편차, p값)이 제시되고 설명되어 있는가?
- 본문에서 언급한 그림과 표가 실제로 모두 존재하고, 서로 일치하며, 앞뒤가 맞는가? 표의 수치가 본문의 서술과 일치하는가?
- 캡션이나 제목을 가린 채 확인해 볼 것. 그림이나 표가 저자의 주장대로 여전히 그 내용을 말해 주는가?



자세히 들여다볼 만한 위험 신호

- 보고된 p값이나 표본 크기와 맞지 않는 통계치
- 인용 누적(citation stacking), 즉 학술적 필요 없이 과도하게 자기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 재사용, 짜깁기,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미지
- 필요한 상황임에도 관련 보고 지침이나 승인 절차가 누락된 경우
- 접근 방법에 대한 안내 없이 '요청 시 제공'이라고만 적힌 데이터나 코드
- 결과 섹션이 기술된 방법론과 대응하지 않는 경우



리뷰 보고서 구성하기

● 본인의 언어로 요약하기

논문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주장하는지 다시 정리합니다. 이는 저자에게 꼼꼼히 읽었음을 보여주고, 논문이 의도한 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저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요 의견(major comment)

중대한 지적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각 지적을 'CLAIMS'의 특정 항목과 연결합니다.

● 사소한 의견(minor comment)

오타자, 레이블, 표현 같은 자잘한 수정 사항은 별도 섹션에 모아, 중요한 지적이 묻히지 않도록 합니다.

● 에디터에게 보내는 비공개 의견

실제 이해충돌이나 연구, 부정 의심 사안에만 사용합니다. 실제 심사 의견은 반드시 본 리뷰에 담습니다.



실행 가능한 피드백을 작성하세요

- 좋은 피드백은 근거에 기반하고 원고에 집중합니다. 두루뭉술한 인상평 대신 구체적인 섹션을 짚으세요.
- 제안은 저자가 실제로 손볼 수 있는 것을 가리켜야 합니다. '연구를 다시 하라'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리뷰에 개인적 의도를 담지 마세요. 예컨대, 학술적 근거 없이 자기 논문의 인용을 요구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AI와 기밀유지

01

원고의 텍스트, 데이터, 그림을 ChatGPT와 같은 도구에 절대 붙여 넣으면 안 됩니다. 리뷰어로서 동의한 기밀 유지 의무를 깨는 행위입니다.

02

리뷰에 담기는 학술적 판단은 AI 모델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03

AI를 오직 본인 리뷰의 문장을 다듬는 데만 사용했다면 에디터에게 공개하세요. 사용한 도구와 버전, 사용 방식을 밝힙니다.

리뷰어 자기 점검을 위한 핵심 규칙

- ✓ 내 이름이 공개된다 해도 이 리뷰를 떳떳하게 내보일 수 있는가?
- ✓ 실질적인 학술적 이유 없이 내 논문의 인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 ✓ 의견에 우선순위를 매겼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주요 의견(major)’으로 표시했는가?
- ✓ 이 논문을 영어 원어민이 썼더라도 똑같이 평가했을까?
- ✓ 실제 결함 때문이 아니라 단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null results)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논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 ✓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데이터와 방법론)을 비평하고 있는가?
- ✓ 내 피드백이 요점을 흐리는 ‘칭찬 샌드위치(compliment sandwich)’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가?
- ✓ 언어와 문화를 넘어가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관용구나 비유를 피했는가?
- ✓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에디터에게 미리 기한 연장을 요청했는가?

알아두면 요긴한 자료:

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출판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 의심, 표절, 중복 게재에 관한 무료 자료(흐름도)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는 더 심각한 정황이 의심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에디티지 회사 소개

캐터스 커뮤니케이션즈(Cactus Communications)의 대표 브랜드인 Editage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언어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Editage는 변화하는 연구 환경과 연구자들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으며, 190개국 이상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와 영향력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오늘날 Editage는 연구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서비스와 AI 솔루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기